

[에버렛 스완슨이 크리스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크리스천 친구들에게,

저에게는 지금 수천 명 중에서 이 특별한 이 편지를 읽을 단 14 명에게만 제안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소중한 친구인 선교사 로버트 라이스(Robert Rice) 목사는 저에게 멋진 기회와 도전에 대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한국 한국기독교부흥협회(Christian Revival Fellowship in Korea)의 설립자이기도 하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진 오늘날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훈련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골 지역으로 갈 준비가 되어있는 20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며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기꺼이 살기 원합니다!

라이스 목사는 이 청년들이 한 달에 10 달러의 급여로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청년들은 그 지역의 영혼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할 것입니다. 저희는 그 청년들에게 1958 년 1 월 1 일부터 시작해서 딱 일 년만 지원해 주기로 약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들이 일 년 안에 전도하고, 아마도 교회 건물도 짓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냈습니다.) 라이스 목사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도 위원회(Evangelistic Committee)의 보고서를 보며, 여러분께서 한국기독교부흥협회(Christian Revival Fellowship in Korea)로 보내주신 도움을 통해 시골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이제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전임 사역 선교사를 만나 보시지 않겠습니까? 전쟁으로 무너진 이 땅에서 여러분의 후원으로 인해 우상숭배를 떠나 자립하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가능하면 빨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일 년 동안 한 달에 10 달러씩만 내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는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여러분은 이런 가슴 떨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좀 더 "저희의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결단했고 이에 매우 설렙니다. 그리고 리코(Rico) 목사님께 저희가 20 명 중 5 명을 후원하겠다고 이미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에게는 벌써 한 달에 20 달러의 급여로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는 전도사 한 명과 세 명의 고아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와 선교회에 십일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교하는 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많은 미국 교회 또는 개인조차도 이 사람들 중 10 명을 쉽게 파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후원도 유지하며) 한 가정이 벌써 이 청년들 중 한 명을 후원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 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후원하는 선교사의” 사진, 삶의 스토리, 개인 간증, 우편 주소를 받게 될 것이고, 매달 그 선교사가 하는 사역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경험입니까!

아마 몇몇 분들은 후원금의 반만 내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월 5 달러). 저희는 그렇게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 월 지원금을 12 월 1 일에 보낼 예정이니, 괜찮으시다면 첫 달 후원금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후원금을 보내야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여유가 생깁니다.)

저희는 일리노이주 록퍼드(Rockford)에서 이제 막 멋진 집회를 마쳤고, 이제 이곳 덴버(Denver)에서 축복 가운데 잘 시작하고 있습니다. (5 일 동안 37 명이 결신했고, 여러 다른 결단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 봄에 네 번째 전도 여행으로 한국에 다시 초대되어 가는 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다음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 중 대부분이 무언가를 더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 분은 전도사 후원 프로그램을 위해 조금 도움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 달러의 후원금 중 1 센트까지도 모두 다 한국의 전도사에게 직접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진실하게,

에버렛 스완슨 올림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0:2)